공덕과 선근, 정법섭수서 시작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⑧ 정법섭수

이때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거듭 사뢰어 여쭈며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제가 지금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조복하고자 하는 큰 서원이 참으로 진실하여 틀림이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대의 말을 들어보자."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갠지스강변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원도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하나의 큰 서원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서원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지혜와 방편은 매우 깊고 미묘하다. 그대는 이미 기나긴 어둠의 긴 밤과 같은 세월에 선근을 많이 심었구나. 미래세의 중생들도 오랫동안 선근을 심은 자라면 능히 그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말하는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또한 당래에도 말씀할 것이다. 나도 이제 깨달음을 얻어 또한 정법을 거두어들일 것을 언제나 말한다. 이처럼 내가 정법을 거두어들일 것을 설하는 공덕은 끝이 없으니 여래의 지혜와 변재 또한 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공덕이야말로 크나큰 공덕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니라."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넓고 큰 뜻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보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뜻이 넓고 크다는 것은 곧 한량이 없다는 것이니 일체 모든 불법(佛法)을 얻어 8만4천 법문을 포섭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겁(劫)이 처음 이루어질 때 크나큰 구름이 일어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온갖 보배가 쏟아지는 것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도 한없는 복을 누리는 과보가 비 내리듯 내리고 한량없는 선근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또 겁이 처음 이루어질 때에 큰 물이 삼천대천세계와 4백억의 가지가지 종류의 육지를 생기게 하는 것처럼 정법을 거두어들이면 대승의 한량없는 세계와 일체 보살의 신통의 힘과 일체 세간의 안온하고 즐거운 것과 일체 세간의 뜻과 같이 자재한 것과 그리고 출세간의 안락을 내게 됩니다. 겁이 이루어지고 천상과 인간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모두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데서 나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법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명제이다. 올바른 진리를 받아지니지 못하면 그야말로 사법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체 공덕과 선근이 정법을 섭수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여 정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승의 근본 서원이 정법을 섭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안락이 정법섭수에서 나온다고 밝히면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겁초(劫初)란 세상이 시작되던 시초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알 수 없는 초시간적 상황에서 시간적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최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이지만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개념으로 겁초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무(無)에서 유(有)가 출현하는 최초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장(章)은 승만 부인의 서원이 이 정법섭수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승만경〉은 〈법화경〉이나 〈화엄경〉과 같이 대승을 선양하는 경전이다. 승만 부인의 서원이 모두 대승의 정신이다. 대승의 서원이 없으면 부처님의 정법이 될 수 없다는 논지다. 부처님의 참된 법은 성문이나 연각, 곧 이승(二乘)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 점은 〈법화경〉에서 5천 대중이 퇴각하는 장면이나 〈화엄경〉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화엄법문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 등과 같이 대승의 종지를 선양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설해진 말들이라 할 수 있다. 〈승만경〉에서는 근본 교리인 사제(四諦)를 두고도 소승의 사제와 대승의 사제가 다르다고 말한다. 모두 부처님 법문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믿음 통해 얻는 견불·생천 공덕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㉛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덕

신행 통해 현실에서 見佛

깊은 신심 공덕으로 生天

불자가 수행력이 부족할 때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 큰 믿음을 일으키는 실천을 통해 수행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믿음의 증과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이 아니지만 부처님을 친견하는 견불(見佛)이나, 내생의 극락왕생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생천(生天) 등의 공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견불(見佛)은 수행자가 생전이나 임종 시 혹은 사후에 부처를 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견불사상이 신앙적 목적과 결부되어 크게 강조되어 왔던 사상입니다.

〈반주삼매경〉에서는 "수행의 초심자나 하열한 근기의 수행자가 신행(信行)을 통해 현실에서 바로 부처를 볼 수 있다."고 견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분별공덕품'에서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 수명이 장원(長遠)함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님께서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어 큰보살과 여러 성문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깊은 신심은 견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0권 화엄경〉에서도 "법답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염불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염불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량없는 부처님 만나게 되리라."고 염불에 의해서 견불이 가능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믿음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공덕으로 생천이 있습니다. 생천사상은 수행자가 일으키는 깊은 신심에 의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잡아함경〉 30권 〈천도경〉에 보면 "불, 법, 승, 계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고 믿음을 통해 생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잡아함경〉37권 〈邪行經〉에서는 "착한 업의 인(因), 착한 마음의 인, 착한 소견의 인은 몸이 허물어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세계 즉 천상에 태어난다."고 선업과 선심과 정견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아함경〉 〈自恐經〉에서도 다음과 같이 생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불법승 삼보를 잊지 않고 닦고 익혔기 때문에 목숨을 마친 뒤 그 몸은 불에 태워지더라도 마음은 오랫동안 바른 믿음으로 훈습되고, 계율(戒)·보시(施)·견문(聞)·지혜(慧)로 훈습되었기 때문에 그 신묘한 의식은 안락한 곳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 미래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고 바른 믿음의 훈습과 정법의 훈습은 천상에 태어남을 설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에서도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은 죽은 후 1천 부처님께서 손을 주어 두렵지 않게 해 주시고,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므로 죽은 후 도솔천의 미륵보살이 계신 곳에 태어난다."고 생천을 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수행이 수행자의 마음에 훈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견불과 생천의 공덕은 비록 성불을 목적으로 한 상근기 수행자의 증과일 순 없지만, 초심자가 믿음을 통한 염불이나 칭명의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덕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⑧ 오온(五蘊)은 내가 아니다

부처님께 이끌려 가면 돼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고귀한 님을 인정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잘 알고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 그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모든 번뇌의 경〉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는 이 쉬운 문장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이끌림은 속수무책(束手無策)이며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께 이끌리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를 묶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에 이끌려가면서는 내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온(五蘊)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온은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기를 거부하며 끊임없이 저항한다. 에덴동산에 머물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처럼, 오온은 내면의 소리로 분별을 일으킨다. 우리는 정신활동을 일으켜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고, 간교한 오온의 속삭임을 너무나 쉽게 긍정해 버린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공부했잖아, 내가 더 나이가 많잖아' 거부할 길 없이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 친밀한 적의 이간질에 '맞아 맞아' 맞장구까지 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 뱀의 소리를 뱀의 소리로 듣지 못한다.

오온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라. 오온의 속삭임은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분별을 일으킨다.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인 오온은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있는지를 보라. 스스로인가, 뱀인가? 오온은 생각을 주도하기에, 생각이 없으면 죽는다고 느낀다. '생각 좀 하고 살아' 하고 속삭인다. 오온은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 정신을 바르게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냥 가볍고, 그냥 편안하다. 고집함이 없어 무거움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온은 이유 없는 포기가 없다. 포기할 때조차 이유를 대면서 집착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집착다발이라고 한다.

스스로는 '그냥'이다. 이런 말을 해도 옳고, 저런 말을 해도 옳다. 그러나 몸이 듣고 싶은 말을 미리 정해두면 그냥 듣지 못한다. 정해둔 말이 아닌 말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요동이 일어난다. 어떠한 소리, 어떠한 반응이 있어도 이것이 조건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 요동은 그친다. 오온이 아닌 스스로는, 조건에 대해서 그냥 놓아버린다. 그냥 할 뿐이다.

들어야할 것 하나도 없는데 귀만 쫑긋하지 듣고 싶은 마음 없어라.
만나서 절 한자리 바르게 하면 되는데 다시 혀를 놀려 절값을 챙기지 못하네.
이렇게 다 보여도 믿지 못하는데,
말을 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절하고 말 하려는 그것을 얼른 알면 나도 수고롭지 않고
저도 수고롭지 않는데
입을 열어 저도 수고롭고 나도 수고롭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나도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에게 다시 물어 알려주어야 할 판,
되물어보면 눈만 깜박거리니
속 타는 마음 어찌할까!
주지 못하는 내가 더 답답하니
이렇게 시원할 수가
더위에 냉수 한 사발 참으로 시원하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3월 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